

## 大學民主化와 學生의 役割

李 光 周

(全州大 歷史敎育科)

學生이 교수와 더불어 대학의 주체임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被敎育者인 그들의 參與는 과연 어디까지 정당하고 당위적인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결국 大學의 본질이 무엇이나 하는 맥락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대학의 본질과 관련된 대학에서의 學生의 位相과 役割을 大學史의 문맥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 1

최근 대학가에 새로운 바람이 일고 있다. 즉 지난 날 대학가를 휩쓴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치열한 정열 대신에 학내 문제들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어 학생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 가고 있다. 그 징후로서 우리들은 지난 해 11월에 있었던 高麗大와 延世大에서의 총학생회장 선거의 양상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고대의 경우 총학생회장으로 선출된 L군은 '서총련'의 정치노선을 비판하고 선거 공약으로서 등록금 동결, 교련 철폐, 교과과정 개편, 학생 소비자 협동조합 건설 등 학생 복지와 권익에 관련된 직접적인 현안들을 제시하면서 총학생회의 활동을 학내 문제로 국한시킬 것을 밝혔다. 연세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으니, 그간 대학 운동권의 '비주류'로 간주되었던 새 회장 C군은 기존의 총학생회가 '정치 활동의 조직'으로 화한 결과 일반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했다고 비판하고 그의 선거 공약으로 졸업생 취업 대책위 구성, 장학금 수혜 폭 확대 등을 내세웠다. 그리고 그 역시 총학생회가 학내 문제에만 전념할 것을 강조했다고 한다.

지난 날 군사 정권하에서 이 땅의 학생들은 최대의 저항 세력으로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다. 그러나 선거에 의한 정부가 발족되고 국회 및 언론이 기능하고 사회 여러 분야에 있어 다양한 논의가 분출되고 있는 이 시점에 있어 학생들 사이에서 보다 다양한 관심과 논의가 일어나고, 특히 그들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학내 문제에 큰 관심이 옮겨짐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88년 11월 3일자의 高大新聞 설문 조사 「오늘날을 사는 고대생의 역사 인식」에 의하면 동교생들의 가장 큰 관심은 ① 진로 및 직업에 관한 문제(23.7%), ② 학업 문제(16.9%), ③ 국가 및 사회 문제(13.9%)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지

난 '84년도 同誌의 설문 조사에서는 국가·사회 문제(16.5%)가 학업 문제(13.5%)보다도 더욱 큰 관심사였다.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학업 문제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11월 3일의 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은 그 구체적 사항으로서 교과과정, 강사·조교 처우, 의료원 수익금 문제, 교원 부족, 학습 환경의 열악, 보건대 문제, 장학금 지급, 실습 기자재 부족, 강의실 등 교내 공간 부족, 복지 시설, 도서관 문제(열람실 부족, 대출 시간)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학내 문제의 원인으로서는 학생들은 학교 당국의 무능력(93.4%)과 재단에 의한 잔여(98.4%)를 지적했다. 그리고 그들의 대부분(87.9%)이 학생 신분으로서 그 해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 그런데 학내 문제에 관한 학생들의 요구나 주장이 반드시 이상과 같은 사안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대학에 있어 보다 광범위하고도 深層의인 參與를 기대하고 있으며, 대학에서의 이른바 스튜던트 파워가 되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 2

바야흐로 학생들은 대학에서의 자신들의 광범위하고도 구조적인 역할을 자부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복지 문제를 넘어서 교과과정의 설정, 강사 초빙 및 시험 문제의 선정 등 교육면에서 그들의 의사가 존중되기를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대학 권위의 상징인 총장 선출에 있어서도 그들의 참여가 응답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11월 某대학에 있어 학교측과 학생 대표들간에 합의를 보았다는 총장 선출의 방식, 즉 학생과 직원 노조 대표로 구성되는 총장 선출 여론수렴위원회의 직격 동의를 거친 후보(교수)를 전체 교수회의에서 직선으로 뽑는다는 결정은 많은 논란을 야기시켰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그 대학의 결정이 전해지자 京鄕 몇몇 대학에서 그와 비슷한 주장이 학생들이나 혹은 직원들간에 일고 있어 학원 문제의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편 부산의 K대에서는 학생 징계와 장학금 지급 등을 심사하는 장학위원

회에 학생 대표를 동참시키고 학사 일정 결정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교수와 함께 학생이 학교의 예산 편성과 결산 심의 등 대학 운영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들은 그러한 결정의 합법성이나 정당성 여부를 묻기에 앞서 그 새로운 바람들이 학원 민주화를 지향하는 학생들의 강한 자의식과 더불어, 또 시대의 새로운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지니지 못하고 있는 구태의연한 대학 기구와 운영의 후진성, 지시·감독·관리를 금과옥조로 하여 온 정부의 대학 정책, 재단의 이익을 대변하였던 이사회 그리고 학원의 구조적 부조리를 무기력하게 묵인하여 온 교수들에 대한 학생들의 누적된 불신 등이 적지않은 원인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학생이 교수와 더불어 대학의 주체임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피교육자인 그들의 '참여'는 과연 어디까지 정당하고 당위적인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결국 대학의 본질이 무엇이나 하는 맥락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대학의 본질과 관련된 대학에서의 학생의 위상과 역할이라는 본고의 주제를 논함에 있어 우선 그것을 大學史의 문맥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 3

유럽 중세에 있어 대학은 '교사들의 조합(길드)' 혹은 '학생들의 조합'(Universitas scholarium)'으로서 출발하였다. 학생들이 발기하여 교사들을 초빙하여 성립된 학생 중심의 대학에 있어 대학의 운영이나 관리는 한 때 학생들이 주관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는 대학이라 하여도 法人 시설물과 기본 재산도 없는 교수와 학생의 단순한 인적 결합체에 지나지 않았다. 당시의 학생 수는 겨우 200~300 명을 넘지 못하였다. 그러나 중세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는 學徒들(교수와 학생들)의 자유로운 조합'이라는 그 본질로 인하여 교회와 俗權으로부터 갖가지 특혜를 받았으니 가장 주요한 것은 자치의 권리이다. 대학 자치의 상징은 학장(rector)이었으며, 대학의 교육·행정 및 재판(중세에 있어 대학 구성원은 교회법이나 국법 및 도시의 법률에 구속

되지 않았다)의 권한을 지닌 학장은 처음에는 교사·학생·직원 등 대학 구성원 전체에 의해 선출되었으나 13세기초부터는 교사들에 한해서만 그 선거권이 주어졌다.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의 학생들은 그들의 학교가 원래 ‘학생들의 조합’으로 발족되었다는 이유를 내세워 한때 학생들에 의한 학장 선출권을 주장하였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그리하여 그들도 중세 대학에서의 학생 일반의 특권인 공공 봉사 및 군사 의무로부터의 면제, 과세의 경감 내지 면제, 식용품비 등의 격감 등 주로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데 만족하였다. 이러한 학생 특권의 한계는 몇 백년을 지켜왔다. 대학의 본질이 교육과 학문 연구에 있다는 인식 아래 학생들은 대학에서의 그들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스스로 한계를 그어왔던 것이다. 그러나 1970년 전후의 구미 각국에서의 스튜던트 파워 운동의 폭풍은 대학 권위의 구조에 대한 학생들의 도전을 격화시켜, 특히 자유베를린대학의 경우 학생 대표가 대학의 평의회, 교수회, 관리위원회(대학 재정의 전반적 관리) 등 모든 회의에서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학생들은 그들의 이른바 ‘참가의 사회’를 대학 속에서 실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소위 ‘베를린 모델’로 일컬어지는 ‘참가’의 이념은 교수·강사·조교·학생 및 직원의 4자가 균등하게 대학 운영에 참여하는 ‘4자 同權’ 체제를 창출하고 마침내는 학생들의 지지를 받은 32세의 조교 출신 총장이 선출되었다. 대학 사상 전무후무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자 많은 교수들이 대학을 떠나게 되고 연구 수준의 격심한 저하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소위 ‘인민대학’을 주장하고 그들의 이데올로기에 동조하지 않는 교수의 강의를 보이콧하는 학생들에게 있어 연구의 레벨 따위는 아랑곳 없었다. 그들은 “교수는 과연 필요한 존재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교수 강의를 폐지하고 교수와 학생이 1대 1로 토론하는 세미나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베를린 모델은 학생들 스스로에 의해 短命의 막을 내렸다. 학생이 대학의 진정한 주체라는 인식에서 출발을 한 베를린 모델의 배경에는 1948년 동 대학의 창건에 즈음하여 학생들이 결정적 역할을 한 사실도 작용하였거니와, 그러나 무엇

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관계 없는 것은 없다!”라고 외치며 대학을 통해 ‘참가의 사회’를 건설하고자 한 학생들의 문화혁명식 발상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 때 자유베를린대학의 학생들에게 흥미하였던 그 ‘참가’의 이념이 지금 이 땅의 일부 학생들을 사로잡아 교과과정의 설정이나 교수·강사 초빙, 시험 문제의 선정 그리고 총장 선출에 있어서의 학생 참여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말한다면 牽強附會라고 할까? 학생들의 지나친 역할 주장은 그 명분이야 어떻든 교육·연구 기관으로서의 대학에 적지않은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4

이제 우리들은 대학의 본질과 관련하여 대학 내에서의 학생의 지위 및 역할에 관해 교수의 그것과의 맥락에서 생각해 보자.

대학의 본질은 교육과 연구에 있다. 그리고 교육과 연구는 법률가나 의사와 마찬가지로 장기간의 수련에 의해 습득되는 고도의 지식과 능력을 요구하는 전문 직업(profession)이다. 그런데 교육·연구자가 그에게 요구되는 과업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역할에 상응한 전문 직업상의 자유(professional freedom)가 주어지고 보장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의사에 의한 진료의 독점과 같은 특정 업무의 수행에 관한 독점권이나 전문 직업에의 가입의 통제(의사 면허증과 같은)에 의한 기술·학식 및 그 결과로서의 지위의 보장 등이다. 이러한 자유 내지 보장은 그들의 특권에 속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 기여를 위한 불가결의 조건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러한 전문적 능력을 지니지 않는 上이나 사용자에 의해 명령되고 지휘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전문 직업적 자유론의 관점에서 맥키버(R.M. MacIver)는 특히 대학의 교수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로서 ① 전문 직업적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문적으로 결정하는 권리, ② 그의 책임과 그리고 그의 사회 및 문명에 대한 높은 기여에 상응하는 지위에 대한 권리를 들고 있다. 그리고 그는 부언하

여 ① 교수는 전문 직능으로서 교육·연구에 관해 주제, 인적 대상 및 방법—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敎示하느냐 혹은 무엇을 누구와 어떻게 연구하느냐—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대학의 교수—강의 자격 부여권, 교원 연구자의 신분 보장 및 그의 집단적 자율권이 학문의 자유 내지 대학 자치의 핵심적 구성 요소임을 강조한다. 역사적으로 면면히 이어진 대학의 자치 및 대학의 자유(Akademische Freiheit)의 이념은 교육과 학문 연구라는 전문 직능적 자각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뒷받침되어 확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전문 직능적 자유의 자각은 단지 대학과 대학인에 대한 정치·사회적 권력의 행사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대학 자체의 구조를 독특하게 규제한다. 예를 들어 사립대학에 있어 교수는 대학의 설치자이며 경영자인 재단 이사회에 의해 초빙·고용된다. 그러나 그들은 대학의 본질적 기능인 교육과 연구의 책임자(총장)를 그들 중에서 스스로 선출하고 대학 기구의 결정 참여의 지위를 갖게 되며 교수의 신분과 지위는 이 사회의 권리권에서 자유롭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대한 교수 참여의 권리마저 당위적인 것으로 긍정된다. 私學은 일견 재단의 私的 경영물로 간주되나 그 주된 과제가 교육·연구에 있는 이상 그것은 공공의 재산이요, 그럼으로써 국가 사회로부터의 갖가지 혜택을 받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대학의 본질적 과제인 교육·연구로 하여 그것을 내용적으로 실현하는 교수야말로 대학의 진정한 주체이다. 전문 직능과는 관계없이 구성된 이사회는 사무적 측면에서 교수들의 교육·연구의 실현을 돕는 기관으로서 교수에 대해 어떠한 명령권이나 감독권도 지닐 수 없다는 인식이 진정한 私學像이다.

우리들은 미국에 있어 대체로 學外者(laymen)의 이사회를 정점으로 하는 관리 체계가 정립되고 그것이 대학 운영에 관한 최종적 권한을 지니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 있어서도 1960년대 이후 많은 개혁이 이루어지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총·학장의 인선에 있어 교수단의 의견이 존중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교수들의 합의를 얻지 못한 자에게 학내의 지위를 부

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학 관리의 실체라고 맥키버는 말하고 있다. 이제 우리들은 대학에서의 학생의 지위와 역할에 관해 생각해 보자.

학생은 교수와 함께 대학의 주체임이 틀림 없다. 그러나 그들은 교육·연구의 전문 직능자가 아닌 점에 있어 결코 대학 기능의 담당자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대학에서의 학생의 역할을 필연적으로 규제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단체와 마찬가지로 대학에도 역할의 체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학내(교수·학생·직원)와 학외(정부·이사회·동창회 등)의 다양하게 분화된 역할들은 다른 역할과의 상호 관계를 존중함으로써 저마다의 의미를 획득한다. 한편 우리들은 他者의 역할이 그의 역할에 대해 교시하고 감동하는 경우도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들은 사회학자 니스벳(R. A. Nisbet)의 표현을 빌려 역할에서의 '규범'이라고 말하고 싶다. 조직의 역할 체계에서의 이러한 규범에 도전하고 이탈하는 역할 갈등은 전통적 권위와 위계 질서가 붕괴된 민주주의 사회의 특징이거니와 그 갈등은 힘에 근거한 전통적 권위를 어느 조직보다도 배제하는 대학 사회에 있어 격심하게 드러날 위험성을 배태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교수와 학생의 공동체인 대학만큼 역할의 규범, 다시 말하여 역할 분담의 구별이 투명하고 엄밀한 조직도 또한 없다. 왜냐하면 전문 직능인 교수와 비전문 직능인 학생의 역할이 분명할 수밖에 없으며, 또 교육자와 피교육자라는 엄밀한 구별에서 그들의 역할 분담은 더욱 선명하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던 학생은 무엇을 어떻게 강의하고 시험과 성적 평가를 하는 교수의 역할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그들이 교수 고유의 역할에 분담 참여하고자 하고 그에 간섭할 때 그들은 학생으로서의 역할에서 이탈할 뿐만 아니라 대학의 규범적 질서와 나아가서는 대학의 본질에 대한 중대한 가해 행위를 범하고 있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생각해 보면 교수와 학생의 저마다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무엇보다도 존중되는 자유로운 인격적 결합체가 대학인 만큼 또한 한편에 있어서는 규범적 질서가 요구되는 사회

도 없다.

그러면 학생들은 기껏해야 그들의 후생 복지나 학습 환경 차원에 국한하여 그들의 권익을 주장하는 데 그쳐야 하는 것일까? 물론 그것은 아니다. 핀자는 학생들로 하여금 대학의 핵심에 관련된 영역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학생 '참가'의 고유한 방식으로서 '학습의 자유(Lernheit)'를 강조하고 싶다.

이 학습의 자유는 학생들이 강의를 수용하거나 혹은 받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학생들은 교수·강사의 초빙 내지 교과 과목의 설정 등에 직접적 참여는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자유와 권리를 향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1950년대즈부터 여러 대학에서 교육 개선의 일환으로 강의에 대한 학생 평가를 제도화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85%에 이르는 학생들이 그 제도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은 결과적으로 교육 개혁의 입안에도 참가하는 것으로 학생 스스로가 평가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밖에 대학은 학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에 대해 학생 참여를 제도적으로 수용함은 물론 학내의 여러 계획과 그 집행 과정 그리고 그 실적 결과를 학생들에게 가능한한 공개함으로써 교수와 학생 공동체로서의 대학의 본질에 성실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대학은 학생의 수도원과 유사하였던 중세의 대학이나 교양과 학문 연구를 위한 근대의 대학과는 달리 현대 대중 산업 사회의 발전에 부응하여야 할 知性의 도시와도 같은 인상을 풍기는 거대한 多機能 綜合大學(multiversity)이다. 그리하여 현대의 대학은 교수, 연구원, 학생, 직원이라는 여러 이해 관심 집단으로 구성되는 구조의 비대한 복합성을 안고 있으며 각 집단들은 저마다의 조직을 통해 대학에서의 역할과 영향력을 주장하고 있다. 이 저마다의 주장이 대학의 혼란이나 무정부 상태를 초래하지 않고 그 발전에 상호 기여할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며 대학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각별한 동참력을 믿어마지 않는다. \*